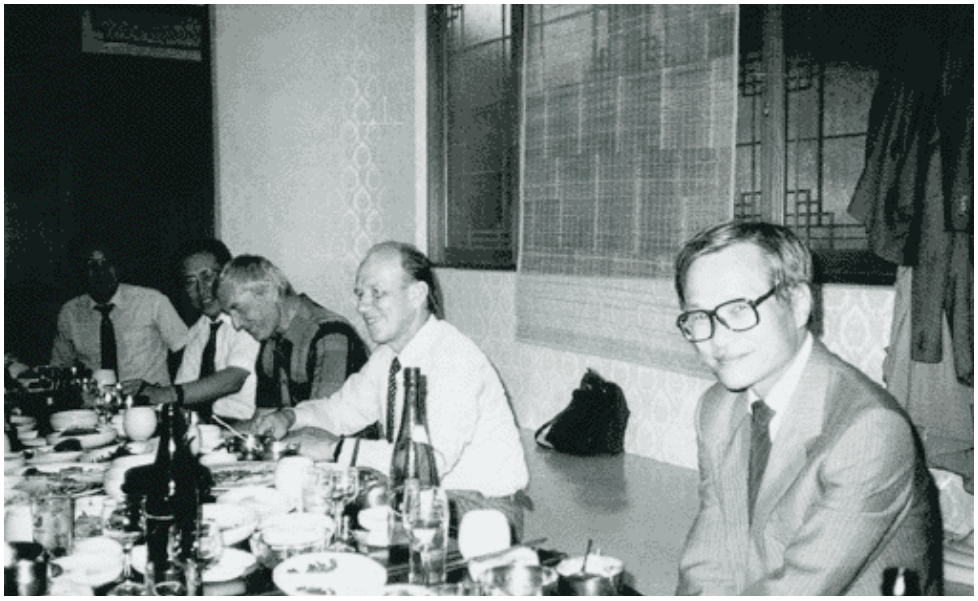
김 열 규 / 인제대 교수

불행한 아내, 처절한 어머니, 시인 아하마토바

“

그가 들려 준 이야기 한 토막! 그것의 감회는 근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생생하다. 그것은 소련 시인 아하마토바에 관한 기막힌 일화였다. 남편을 강제 수용소에서 잃고 아들마저 같은 생지옥에 보내야 했던 불행한 아내, 처절한 어머니인 아하마토바의 이야기.

”



필자 왼쪽 바로 옆이 콘체비츠 교수, 그 옆이 체코인 한국학 교수

‘ 이럴 수가? ’

그 때 그 당장, 반신반의해 마지 않던 그 사건.

지금도 여전히, ‘ 차마 그럴 수가? ’ 긴가민가 하면서 되돌아 보게 되는 그 사건.

그러니까 그게 1990년도의 일이다. 내가 그때 관여하고 있던 학술진흥원의 주선으로 모스코바 대학의 콘체비츠 교수를 만났다. 그것도 서울 시내 한 복판의 어엿한 식당에서.

그는 그 전에도 몇 번 만났었다. 파리며 런던에서 함께 한국학회에 참여했었다. 그러다가 1989년에 모스크바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도 여전히 뭔가 떨떠름했다. ‘ 붉은 광장 ’이 지척인 곳이라 그랬을까?

이같이 ‘ 나의 개방 ’이 서서히 진행된 끝이라 서울의 만남은 예사로울 법도 했으나 마음 속내 한 구석은 여전히 어벙벙했다. 그러면서도 소련의 붕괴를 서울에서 앉은 채 확인할 수 있다는 것, 그건 큰 기쁨이었다. 10월혁명 이후, 늘상 세계사를 피로 물들여 온 볼세비키의 퇴조를 서울 한 복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감격이었다.

‘ 그런 중에도 우리의 북쪽은 언제? 하는 궁금증이 가슴을 옥죄고 들었다. 앙드레 지드며 심지어 스테판 쓰바이크까지도 10월혁명에 감탄해 마지 않았다. 다른 작가는 몰라도 쓰바이크조차 그 붉은 환상에 일시나마 젖어 있었다는 것을 나는 한때 믿을 수가 없었다. 마야코프스키가 10월혁명을 예수의 재림이라고 우러러 본 거야 피치 못할 착란이라 쳐도, 쓰바이크의 시행착오는 내겐 참 마음 아픈 일이었다. 누구의 편도 어느 무리의 편도 들려고 하지 않던 절대의 유일자로서 나는 쓰바이크를 좋아했기 때문이다.

나는 그런저런 나의 생각의 일부를 콘체비츠 교수에게 털어 놓았다. 그래야만 그 동안의 체증과 울증이 풀릴 것 같았다. 그런데 나의 이야기의 뒤를 물고 그가 들려 준 이야기 한 토막! 그것의 감회는 근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생생하다.

그것은 소련 시인 아하마토바에 관한 기막힌 일화였다. 그 남편을 강제 수용소에서 잃고 그 아들마저 같은 생지옥에 보내야 했던 불행한 아내, 처절한 어머니인 아하마토바는 드디어 당에서는 물론 작가동맹에서도 축출당한다.

살 길과 돈줄이 끊긴 그녀는 한국 시조집 번역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다. 물론 번역은 아니었다. 콘체비츠 교수의 번역 원고에다 시적인 분위기를 살리게 가필한 것이다.

그것은 아하마토바의 반체제 운동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싶은 게 내 심정이다. 그래서 아하마토바를 더 좋아하게 된 것. 그것이야말로 콘체비츠 교수의 서울 방문 최고의 선물이다.